

성가 와 복음 성가

수직과 수평의 개념

교회음악이 곧 성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엄격히 말해 성가(Cantus Sacra)는 가톨릭교회의 전례음악으로써 미사나 성무일과 등에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전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연주용 성가곡 등은 교회음악의 범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성가는 인간이 하느님께 올리는 마치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수직형태의 개념이 된다.

복음성가(Gospel Song)란 선교 등을 목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하느님의 복음말씀을 전하는 마치 수평형태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복음성가에서 “성가”라는 단어보다는 “노래”라는 단어로 바꾸어 “복음노래”라고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사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가라는 단어가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직과 수평의 개념이 어우러져 마치 십자가의 형태가 형성되듯이 성가와 복음성가를 너무 격리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로 보아도 될 것이다. 결국 어디에 지향을 두느냐에 따라 성가와 복음성가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농구 같은 성가와 야구 같은 복음성가

같은 스포츠라도 농구와 야구는 그 개념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 농구는 넓은 장소에서 거한이 조그마한 바구니를 향해 공을 집어넣는 좁은 공간의 개념으로 힘만 가지고 마구 휘두를 수 없는 경기인데 마치 미사에서 많은 교우들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가는 이러한 농구처럼 목표점을 향해 즐기차게 나아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구에 비해 야구는 좁은 타석에서 공을 넓은 장소로 멀리 보내는 경기이다. 그러므로 기술과 더불어 힘이 강조되는 경기로써 마음껏 감정을 분출하는 느낌으로 복음성가가 곧 이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태는 바로 야구와도 같이 온 세상을 두루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행동과 넓은 공간을 지향하는 개념인 것이다.

한복 같은 성가와 양복 같은 성가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는 성가의 최고봉이며 가톨릭교회의 보배이다. 그러



배성환 루카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태성전자 기술고문



므로 우리들이 명절 때 입는 한복과도 같이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복은 평상시에도 계속 입고 다닐 수만 없는 것이다. 생활의 환경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동, 서양을 막론하고 양복이 보편화되어 이제는 양복이 우리나라의 옷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라틴어로 되어 있고 대개 2번째나 3번째 모음에 악센트가 있어 우리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반 신자들이 잘 이해도 되지 않지만 노래하는 공간이 다소 공명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아무 성당이나 매 미사나 교우들이 부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우리말과 현대에 적합한 성가가 즉, 양복과도 같은 성가가 전례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음악이 최고라 하여 무조건 이것만 답습한다면 후세 사람들이 볼 때 “오늘의 성가는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성가의 형태와 복음성가의 형태

성가의 형태는 곧 음악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로는 단성음악(Monophony)으로 그레고리오 성가나 한국의 판소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음이 없으며 리듬과 선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그레고리오 성가는 말에 그대로 부합된 음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두번째로는 다성음악(Polyphony)인데 중세음악 등에서 각 성부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대단히 기교적이었지만 가사 전달에 무리가 있어 전례음악으로는 점차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번째로는 화음음악(Homophony)로 화음이 주축이 되어 각 성부의 흐름과 아울러 상하의 수직적 화음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가사 전달에도 효과적이어서 오늘날 성가 형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복음성가의 형태는 이러한 화음음악을 토대로 대중음악

에 많이 사용하는 실용리듬이 추가로 강조되어 얼핏 대중가요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다소 경시하거나 기성세대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무조건 배척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 미사 등에서는 보컬 밴드처럼 요란하고 감정이 지나쳐 미사의 분위기를 해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에도 언급했듯이 그 지향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우리의 음악 정서와 현실

오늘날 방송 등 각종 매체에서 순수음악이 나오는 경우는 전체음악의 3%도 채 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도 단순한 피아노반주로 방송되지 않고 악단 반주로 편곡되어 매우 리드미컬하게 나오는 실정으로 어린이들은 물론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실용음악에 저절로 젖어있는 현실이다. 신세대들은 대단히 빠르고 리드미컬한 노래에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어 기성세대는 이를 배우기조차 쉽지 않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공감대의 성가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월드컵 축구나 프로야구 등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축구나 야구를 전혀 해보지 못한 여성 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성가도 인기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면 저변확대와 아울러 전례음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성가대가 수준이 높아져야 됨은 물론 악곡의 선정에도 보다 신자들과 공감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 명곡이라 하여 전례 상 맞지도 않고 또한 난해하여 신자들에게 외면당한다면 그 가치가 반감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성가나 복음성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인 진(眞)이라는 보석을 미(美)라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포장하여 선(善)의 경지인 최고의 선물을 하느님께 바치고 복음을 전파하자.